



## 國家經濟를 先導하는 尖端 電子産業

韓 亨 洙 / 三星電子(株) 社長·本會 副會長

올 한해는 특히 3저현상의 실체가 경제분야 곳곳에서 드러났다. 또한 아시안 게임이라는 큰 행사를 통해 자랑스런 우리의 자력을 느껴보기도 했다.

작년 9월 22일 선진 5개국 재무상회의(G5) 이후 불기 시작한 円高 현상을 필두로한 3저의 바람은 금년들어 우리 경제의 주요 지표들을 흑자로 바꾸어 놓았다. 이에 따라 금년을 한국 자립경제의 원년으로 삼자는 의견까지 나오기도 했다. 이러한 영향은 전자업계에도 나타나 一喜一悲를 느끼게 했다.

금년 한해 동안 전자업계는 외형적으로 호황을 누려왔지만, 한편으로는 많은 난제들로 시련을 받았고 그를 극복하려고 노력해왔다. 엔고 현상으로 인해 해외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었던 데 반해, 부품의 대일의존이라는 고질적인 병폐의 영향으로 결코 달가운 것만은 아니었다. 또한 미국에 이어 유럽에서도 한국산 전자제품에 대한 덤핑제소 등 수입규제 분위기가 강화되고 있어 바야흐로 세계시장은 자국산업의 보호라는 미명하에 그 어느 때보다도 보호무역주의가 팽배해 가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최근에 실시된 미의회선거에서 보호무역주의를 표방하는 민주당 의원들이 대거 당선됨으로써 그 우려는 점점 더 현실화되

어가고 있어 '87년의 대미수출 전망도 불투명하다 하겠다. 게다가 계속되는 시장개방 압력 및 미의 회선거 결과에 따른 정부의 조기 시장 개방정책으로 인해 전자제품의 국내시장 유입도 피할수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三星電子는 지속적인 기업변신과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경영을 통해 금년 한해도 괄목할 만한 성장을 지속해 왔다. 작년과 마찬가지로 보호무역의 장벽을 뛰어넘기 위해 수출 대상을 다변화하여 미주 중심에서 점차 유럽이나 동남아 등으로 시장을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근래에는 일본 시장에까지 진출하는 성과를 올리고 있다.

또한 수출증대에 있어 가장 큰 장애요인인 덤핑제소에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해 나가고 있다. 대표적인 것으로 해외 생산 법인을 직접 설립하거나 활동을 강화, 현지생산을 통한 현지판매로 관세의 장벽을 헤쳐 가고 있다.

금년에는 특히 영국의 빌링햄에 종합가전공장을 설립하여 유럽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할 발판을 확보함으로써 이 지역에 대한 수출증대에 밝은 전망을 안겨주고 있다.

「인간과 호흡하는 기술(HUMAN-TECH)」을 모토로 그 실현

을 위해 부단히 정진, 연구 개발 면에서도 눈부신 성과를 올렸다. 10월달에 열린 한국전자전 신제품경진 대회에서 세계최초로 개발한 4mm VTR을 출품, 우리의 기술력을 세계에 과시했다. 이는 VTR의 종주국이라 할 수 있는 일본에서조차도 아직 연구단계이거나 시도조차 하지 못한 쾌거로서 세계시장을 깜짝 놀라게 하기에 족했으며, 국내 전자기술에 대한 국민적인 자부심을 심어 주었다. 이 밖에도 말레이시아에 VTR의 기술을 수출하기도 했으며, DAT 레이저 광선을 이용한 고속복사장치, 자동차 무인경보시스템 등 많은 획기적인 신제품들을 개발해 내었다.

또 하나 심각한 문제인 부품의 대일의존에 따른 가격경쟁의 열세 및 무역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한 노력으로 금년 한해는 그 어느 때보다도 부품국산화의 열기가 드높았다. 삼성전자도 이에 발맞추어 지난 연말부터 국산화 추진팀을 구성, 국산화 노력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다. 금년 한해만 해도 괄목할 만한 국산화 실적을 올려 부품의 대일의존에서 탈피해 나가고 있으며, 해외시장에서도 일본이나 대만 등 경쟁국 제품과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부품 국산화 노력은 전사적인 측면에서 꾸준히 전개되어 나갈 것이다.

## 1986年度 電子産業을 總決算한다\*

한편 사내적인 측면에서는 비상(飛翔)MARCH-86운동을 전개하여 자아혁신을 통한 체질개선과 新社風 조성 및 미래로의 도약을 추진해 왔다. 세계 7대 기업으로의 도약을 목표로 강력하게 추진해 온 비상 MARCH-86 운동을 통해 생산능력의 극대화, 마케팅의 혁신, 전업무의 자동화, 사업부제의 심화, 新社風의 조성, 산업전자화의 발판을 내실있게 다진 한해였다. 2,000년대의 첨단 산업사회를 선도해 나갈 도약의 발판을 마련한 것이라 하겠다.

전자산업이 지속적인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내년도에도 여전히 극복해야 할 난제들이 놓여 있다. 금년과 마찬가지로 보다 능동적, 적극적으로 난제들을 풀어나갈 전자인들의 굳센 용기와 진취적 기상이 필요하리라 생각한다.

내년의 경제를 전망해 보면 먼저 외국 상품의 국내 유입이 활발하게 진행될 전망이다. 아울러 원화에 대한 평가절상 압력이 강화되어 어느 정도 선에서 평가절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국내 전자제품의 가격경

쟁력이 악화될 것이며, 그렇게 되면 수출물량이 감소되는 결과가 될 것이다.

또한 원화의 평가절상분을 제품가격에 전가시키지 못하므로 채산성의 악화가 예상된다. 결국 원화의 평가절상에 따른 환차손이 환차익보다 커 경상수지 면에서 이익의 감소를 초래할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엔화가 달러당 160엔 선에서 계속 머물 전망이고 유가도 큰 변동은 없을 것으로 보여 몇가지 난제들만 슬기롭게 극복한다면 내년도도 한국의 전자산업은 계속 비약적인 발전을 할 것으로 생각한다.

먼저 원화절상 및 엔고 현상에 대한 대책으로는 가격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부품국산화의 추진과, 자동화·전산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 부품수입선 다변화 등으로 원가절감을 추진해야 한다.

수출지역 다변화 및 지역별 가격 차별화 정책을 시도하여 미주지역에의 수출의존도를 낮추는 대신 강세 통화국으로의 수출 비중을 높이고, 원화 대비 강세 통화인 나라에는 저가품, 고가품 등이

증가적 정책으로 시장을 개척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대일 부품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서는 수입선 다변화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인 부품국산화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여러튼 올해의 비약적인 성취를 발판으로 내년에는 큰 도약을 이룩할 수 있는 호기로 삼을 중요한 시기이다. 한편으로는 대외시장의 호기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기업체질을 튼튼하게 개선하여 언제 닥칠지도 모를 三高시대로 대비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국가경제를 선도하는 첨단산업으로서의 전자산업에 대한 긍지를 갖고 내년도도 불가능은 없다는 신념과, 힘찬 기상으로 앞서가는 전자인이 되어야 하리라.

대망의 2천년대 고도산업사회 및 첨단기술을 바탕으로 한 희망찬 사회가 우리 전자인들의 노력에 의해 성취되어가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모두 함께 노력하자. 내년 한해동안도 전자인의 전승을 기원하면서.....

